

주간 시장 보고서

글로벌 철강 주간동향 보고서

아시아 수출 압력 확대 속 터키 스크랩 반등·미국
판재류 강세

분석 기간: 2026 년 7 월 15-23 일

핵심 진단

이번 주 글로벌 철강시장의 지역별 차별화가 한층 뚜렷해졌다. 아시아는 계절적 수요 부진과 중국산 반제품 수출 확대에 가격이 약해졌고, 터키 스크랩은 신규 성약으로 반등했다. 미국 판재류는 높은 가격을 유지했으나 유럽은 여름철 수요 둔화와 수입 불확실성, 강화되는 탄소·무역 규제에 제약을 받았다.

1. 주간 종합

주간 결론

이번 주 가장 뚜렷한 시장 신호는 일률적인 가격 방향이 아니라 지역별 격차 확대였다. 중국과 동남아는 수요 부진과 공격적인 반제품 공급에 직면했고, 터키는 스크랩 거래 정체에서 벗어나 높은 가격의 신규 성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공급 부족 프리미엄을 유지했으며 유럽은 여름 휴가철과 강화된 무역규제를 앞두고 신중한 거래가 이어졌다.

핵심 시장 신호

- 중국 10 월물 열연 선물은 7 월 15 일 톤당 3,327 위안에서 22 일 3,282 위안으로 하락했고, 철광석 선물도 762 위안에서 739.5 위안으로 낮아졌다.
- 베트남의 주력 재압연용 수입 열연은 톤당 520-525 달러(CFR)로 하락했으며, 중국산 Q195 열연은 497 달러(CFR)에 거래됐다.
- 미국산 HMS 1&2(80:20)의 터키향 가격은 신규 성약 이후 톤당 375 달러(CFR)로 올랐고, 철근 업체들은 575-580 달러(FOB)와 580 달러 안팎(EXW)을 시험했다.
- 미국 중서부 열연은 제한적인 현물 공급과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쇼트톤당 1,164.60 달러의 강세를 유지했다.
- 중국의 6 월 슬래브 수출은 사상 최대인 90 만 9,845 톤으로 5 월의 두 배를 넘어 역내 반제품 가격 압력을 높였다.

표 1. 주간 핵심 지표

지표	기간 말 가격	시장 해석
중국 열연 수출	\$500/t FOB	표면상 보합, 역내 수요는 약세
베트남 열연 수입	\$520-525/t CFR	전주 대비 3-5 달러 하락
터키 HMS 1&2(80:20)	\$375/t CFR ex-US	7 월 15 일 대비 6 달러 상승
북유럽 열연	톤당 700-710 유로(EXW) 안팎	거래 부진·소폭 약세 압력
미국 중서부 열연	쇼트톤당 1,164.60 달러(FOB mill)	고가 유지·공급 타이트

2. 글로벌 가격 지표와 중국 선물시장

표 2. 주요 철강재 및 원료 가격

품목	조건	7 월 15 일	7 월 22 일	변동
철광석 62% Fe	호주산 중국향 CFR	\$100.75/t	\$98/t	-\$2.75/t
원료탄	호주 FOB	\$231/t	\$224/t	-\$7/t
HMS 1&2(80:20)	미국산 터키향 CFR	\$369/t	\$375/t	+\$6/t
탕산 빌렛	EXW·부가세 포함	RMB2,990/t	RMB2,960/t	-RMB30/t
터키 철근	FOB	\$573/t	\$575/t	+\$2/t
중국 열연	FOB	\$500/t	\$500/t	보합
베트남 열연 2mm	CFR	\$533/t	\$522/t	-\$11/t
독일 기준 열연	EXW·부가세 제외	EUR700/t	EUR700/t	보합

중국 선물, 주중 반등분 반납

7 월 15 일 기술적 매수로 중국 철강 선물이 반등했으나 건설 수요 부진, 높은 계절 재고, 미국 관세 우려가 상승분을 되돌렸다. 22 일까지 상하이선물거래소 철근은 15 일 대비 32 위안, 열연은 45 위안 하락했다. 다렌 철광석은 22.5 위안 내렸으며 원료탄은 광산 안전규제의 일시적 지지로 하락 폭이 7 위안에 그쳤다.

표 3. 중국 선물가격 변화: 7 월 15-22 일

계약	7 월 15 일	7 월 22 일	변동
SHFE 철근 2026 년 10 월물	RMB3,115/t	RMB3,083/t	-RMB32/t
SHFE 열연 2026 년 10 월물	RMB3,327/t	RMB3,282/t	-RMB45/t
DCE 철광석 2026 년 9 월물	RMB762/t	RMB739.5/t	-RMB22.5/t
DCE 원료탄 2026 년 9 월물	RMB1,273/t	RMB1,266/t	-RMB7/t

3. 아시아: 열연 약세와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베트남

중국산 주력 열연 수출가는 톤당 500 달러(FOB) 부근을 유지했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목적지와 강종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해졌다. 재수출용 Q195 열연 2 만톤이 베트남향 497 달러(CFR)에 거래됐으며, 중국산 1 만 5,000 톤의 이집트향 485 달러(FOB) 거래는 미확인 상태다. 중국산 5 만톤의 터키향 거래는 530 달러(CFR)로 제시됐다.

베트남 수입시장은 약세가 이어졌다. 주력 재압연용 열연은 톤당 520-525 달러(CFR)로 전주 대비 3-5 달러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고로산 열연의 비드는 520-525 달러(CFR), 인도산 오퍼는 520 달러(CFR) 부근이었다. 포모사하펀도 8-9 월 선적분을 인하했지만 뚜렷한 수요 회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아시아 주요 열연 거래 및 오퍼

원산지·도착지	물량	가격	상태·비고
중국→베트남 Q195	20,000 t	\$497/t CFR	거래 보고·재수출용
인도네시아→베트남 SAE1006	30,000 t	\$509/t CFR	미확인
인도→베트남	30,000 t	\$520/t CFR	오퍼·복수 철강사 선택
중국→터키	50,000 t	\$530/t CFR	거래 보고
중국→이집트	15,000 t	\$485/t FOB	미확인

인도·동북아

인도 판재류는 소비 부진에도 수출 계약이 내수 공급을 제한하면서 가격을 유지했다. 열연은 톤당 5 만 7,500-5 만 8,000 루피(창고도), 냉연은 6 만 5,250-6 만 5,300 루피, 용융아연도금강판은 7 만 3,000-7 만 3,500 루피로 평가됐다. 일본의 6 월 조강 생산은 회복됐으나 7-9 월 철강 수요 둔화 전망이 역내 상승 여력을 제한했다.

아시아 시장 해석

일부 철강사는 수출 수주잔고로 지지받고 있으나 역내 실질 기준가격은 저가 중국산 반제품과 열연이 결정하는 흐름이다. 내수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8 월 베트남 CFR 기준 520 달러 초반 이하의 경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4. 유럽·미주: 판재류 시장의 차별화

유럽: 수요 부진과 정책 불확실성

북유럽 열연의 실거래 가능 가격은 톤당 700-710 유로(EXW)로 제시됐으며 720-740 유로의 높은 오퍼는 폭넓은 매수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보합을 유지했다. 독일 후판과 폴란드 봉형강도 부진했으며, 아르셀로미탈은 유럽 봉형강을 25 유로 인상해 원가·정책 지지가 수요 부진을 상쇄할 수 있는지 시험했다.

무역·탄소정책은 즉각적인 상업 변수로 부상했다. CBAM 이 세분화된 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브라질의 1-6 월 EU 향 슬래브 수출은 약 102 만톤으로 전년 대비 283.7% 증가했다. 영국은 브리티시스틸을 국유화했으며 유럽 철강업계는 수입과 탄소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ETS 및 세이프가드 제도를 요구했다.

미국: 타이트한 판재 공급이 프리미엄 지지

7 월 21 일 미국 중서부 열연은 cwt 당 58.23 달러, 쇼트톤 환산 1,164.60 달러였다. 수요가 견조하고 현물 공급이 제한됐지만 10 월 납기 수입재가 cwt 당 50 달러 초반에 제시되면서 미국 철강사의 추가 인상을 제약하기 시작했다. 서부 도착도 열연지수는 쇼트톤당 1,180.80 달러였다.

표 5. 유럽·미주 주요 시장지표

시장	품목·지표	수준	시장 해석
북유럽	열연 EXW	톤당 700-710 유로 실거래 가능	여름 비수기·고가 오퍼 저항
미국 중서부	열연 FOB mill	\$1,164.60/st	현물 공급 부족·견조한 수요
미국 서부	LA 도착도 열연	\$1,180.80/st	전주 대비 쇼트톤당 20 달러 상승
브라질→EU	1-6 월 슬래브 수출	약 102 만톤	전년 대비 283.7% 증가·CBAM 상업화
중남미	브라질 열연 수출	\$575-585/t FOB	상단 5 달러 하락

지역별 가격 격차

미국 프리미엄은 공급 부족에 기인해 수입재 유입에 취약하다. 유럽의 명목상 견조한 내수가격도 제한적인 거래 유동성을 가리고 있다. 반제품과 열연 공급이 풍부한 아시아에 두 지역 가격을 단순 적용하기 어렵다.

5. 중동·터키: 스크랩 반등에도 제품 수요는 부진

정체 이후 방향을 바꾼 스크랩시장

검토기간 초반 터키 심해 스크랩 거래는 제강사들이 저점을 시험하면서 사실상 멈췄다. 이후 신규 성약으로 미국산 HMS 1&2(80:20)는 톤당 375 달러(CFR), 슈레디드·보너스는 395 달러로 올랐다. 벨기에산 HMS 1&2 는 368 달러에 거래됐다. 반등으로 공급자의 협상력은 강화됐으나 제품 판매는 여전히 부진했다.

철근·빌렛

스크랩 원가 상승으로 터키 철근업체들은 내수 오퍼를 톤당 580 달러(EXW), 수출 오퍼를 575-580 달러(FOB)로 높였다. 카라데니즈 지역 제강사는 내수에서 약 3 만톤을 578 달러(EXW)에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초 실거래 가능 가격이 560-565 달러였다는 점에서 이번 상승은 수요보다 원가가 주도했다.

빌렛 거래는 선별적으로 이뤄졌다. 내수 오퍼는 톤당 530 달러(EXW)였고 러시아산 4 만톤이 490 달러(CIF)에 논의됐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산 GCC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터키에서는 510-515 달러(CFR)의 중국산 빌렛이 거래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표 6. 중동·터키 가격 신호

품목	가격·물량	변동·상태	시장 의미
미국산 터키향 HMS 1&2	\$375/t CFR	7 월 22 일 하루 5 달러 상승	신규 성약이 저점 재설정
벨기에산 HMS 1&2	\$368/t CFR	성약 확인	유럽산 대체재
터키 내수 철근	\$578-580/t EXW	오퍼 인상·거래 1 건	원가 주도 반등
터키 수출 철근	\$575-580/t FOB	오퍼	수요는 여전히 제한적
러시아산 터키향 빌렛	\$490/t CIF	4 만톤·미 확인	내수 생산원가 하회

물류 리스크

호르무즈해협과 홍해의 안보 위험이 운임 및 항로 불확실성을 높였다. 즉각적인 가격 영향은 균일하지 않았지만 수입업체는 납기 확실성, 인증 공급사, 유연한 하역 선택지를 더욱 중시했다.

6. 원료: 철광석·원료탄 약세와 스크랩 차별화

철광석, 톤당 100 달러 아래로 하락

호주산 62% Fe 철광석은 7월 22일 중국향 톤당 98 달러(CFR)로 하락했다. 계절적 철강 수요 부진, 호주·브라질 선적량의 주간 20.4% 증가(2,590 만톤), 포트헤들랜드 노사 우려 완화가 공급 위험 프리미엄을 낮췄다. 시만두 프로젝트 가동도 장기 공급 확대 전망을 강화했다.

22일 필바라블렌드 분광은 톤당 96.65 달러(CFR), 브라질 BRBF는 102.30 달러에 거래됐다. 발레는 2018년 이후 최고 2분기 철광석 생산을 기록했고 리오틴토와 BHP도 높은 생산·선적 실적을 내놓아 공급 측 약세 요인이 지속됐다.

중국 안전규제 지지에도 원료탄 하락

호주산 프리미엄 중휘발성 원료탄은 톤당 224 달러(FOB)로 7월 15일 구니엘라 거래보다 5달러, 3주간 약 20달러 하락했다. 아시아 철강 수요 부진이 산시·내몽골의 광산 점검과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일시적 지지를 압도했다.

지역별로 엇갈리는 스크랩시장

터키 지표는 화물 매입 재개로 상승했지만 아시아 수입시장은 약세를 유지했다. 대만 컨테이너 HMS 1&2는 기간 초 톤당 328-330 달러(CFR)였고, 파키스탄은 운임과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높은 오퍼에 직면했다. 도쿄스틸은 공장별 매입가격을 선별 조정해 지역·사업장별 수급 차이를 드러냈다.

표 7. 원료 가격 흐름

원료	시작·기준	기간 말·최근	방향
62% Fe 철광석·중국 CFR	\$100.75/t (15 Jul)	\$98/t (22 Jul)	하락
프리미엄 원료탄·호주 FOB	\$231/t (15 Jul)	\$224/t (22 Jul)	하락
미국산 터키향 HMS 1&2 CFR	\$369/t (15 Jul)	\$375/t (22 Jul)	상승
일본 HMS2 FOB	JPY53,000/t (15 Jul)	JPY52,500/t (22 Jul)	하락

원가 신호

철광석과 원료탄 하락은 시차를 두고 고로 원가를 낮추지만 터키 전기로 원가는 스크랩 성약과 함께 즉시 상승했다. 이는 아시아 일관제철사와 터키 철근 생산업체의 단기 경쟁력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7. 반제품·봉형강: 중국 수출이 공급 해소 창구로 사상 최대 슬래브 수출, 아시아 교역 재편

중국의 6 월 슬래브 수출은 월간 사상 최대인 90 만 9,845 톤으로 5 월 41 만 6,184 톤의 두 배를 넘고 전년 동월보다 658% 증가했다. 인도네시아가 전체의 약 47%인 42 만 6,859 톤, 이탈리아가 16 만 501 톤을 수입했다.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과 이란산 공급 차질이 수출 급증을 이끌었다.

중국산 슬래브는 톤당 465-480 달러(FOB), 베트남산의 한국향 거래는 490 달러(CFR) 부근이었다. 인도네시아 주요 공급사는 8 월 선적분을 470 달러(FOB)로 내린 뒤 475 달러로 소폭 올렸다. 동남아·동아시아 슬래브는 485-500 달러(CFR)로 저점에 근접했으나 제품 수요 부진에 여전히 노출됐다.

빌렛 수출로 확대되는 중국의 GCC 영향력

중국의 상반기 GCC 향 빌렛 수출은 UAE 를 중심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UAE 향은 전년 대비 450% 증가한 32 만 8,700 톤이었다. HBIS 탕산이 ECAS 인증을 새로 취득해 승인 공급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지 리롤러의 중국산 조달이 쉬워졌다.

봉형강은 수요 제약 지속

중국 철근은 선물 반등에 따른 매수로 일시 회복했으나 건설 실수요는 약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이탈리아 철근 거래가 부진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생산자 가격 포함에도 계절적 수요 둔화로 거래가 제한됐다. 베트남 철도사업은 2026-2030 년 레일강 수요 약 400 만톤이 예상돼 중기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표 8. 반제품·봉형강 교역 지표

지표	물량·가격	비교	시사점
중국 6 월 슬래브 수출	909,845 t	+118.6% m/m; +658% y/y	사상 최대 수출 해소 창구
중국산 인도네시아향 슬래브	426,859 t	6 월 전체의 47%	최대 도착지
중국산 이탈리아향 슬래브	160,501 t	+191% m/m	유럽 판매처 회복
중국산 UAE 향 빌렛·상반기	328,700 t	+450% y/y	GCC 공급 기반 확대
베트남 레일 수요·2026-30 년	약 400 만톤	프로젝트 기준 추정	중기 봉형강 기회

8. 정책·무역구제 및 기업 동향

무역장벽, 계약 조건으로 전환

이번 주 제품 접근성과 도착원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치가 잇따랐다. 태국은 우회덤핑 조사 후 중국산 선재 보호조치를 연장했고, 페루는 중국산 강관에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터키는 철강 함유 제품의 수입감시 범위를 확대했다. 유럽에서는 CBAM 이 미래의 준수 과제에서 가격·서류·위험 배분을 좌우하는 변수로 바뀌었다.

영국의 브리티시스틸 국유화는 생산 연속성, 고용, 공급망 안보를 우선했다. 동시에 축소된 EU 쿼터는 우크라이나 강관 생산을 위협하고 터키 봉형강 수출을 제약해 쿼터 운용이 교역뿐 아니라 철강사 가동률까지 좌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설비·투자 신호

표 9. 주요 기업·설비 투자

기업·시장	주요 내용	규모·시기	전략적 해석
SAIL·인도	빌라이 증설 계약	연산 3,500 만톤 전략 일부	장기 생산능력 확대
알아마마·사우디	신규 빌렛 제강설비	2 억 7,000 만리얄 설비계약	수입 의존도 축소
호아팻·베트남	레일·형강 공장	연산 70 만톤·2027 년 2 분기 공급	인프라 수요 연계
리버티 갈라티·루마니아	위탁압연 계약	압연 재가동 경로	전면 재가동 전 설비 활용
SSAB·유럽	2 분기 영업이익	+26% y/y	가격·출하 증가
SDI·미국	2 분기 철강 출하	사상 최대 370 만 쇼트톤	하반기 낙관 전망

시장 참여자별 시사점

- 수출업체는 규제준수 자료, 쿼터 가용성, 항로 위험을 사후 비용이 아니라 계약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 수입업체는 특히 운임·제재 위험이 큰 반제품시장에서 확정 거래와 오피·시장소문을 구분해야 한다.
- 철강사는 터키의 원가 주도 상승이나 미국의 공급 주도 상승을 글로벌 수요 회복 신호로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9. 다음 주 전망과 시장 대응

다음 주 기본 시나리오

아시아 판재류와 반제품은 계절적 수요 부진으로 재고 보충이 제한돼 약보합을 이어갈 전망이다. 터키 스크랩은 신규 성약 범위를 유지하겠지만 제품 수요 부진이 철근 상승을 제한한다. 미국 판재류는 강세를 유지하되 수입재가 상단을 막고, 유럽은 여름 비수기로 거래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 다음 주 3 대 시나리오

시나리오	촉발 요인	예상 가격 영향	가능성
기본	아시아 수요 부진·운임 안정·대형 부양책 부재	아시아 열연·반제품 약보합·철광석 90 달러 후반	높음
약세 확대	중국 수출 증가·재고 상승·무역장벽 강화	베트남 열연 520 달러(CFR) 하회 시험·반제품 약세	보통
원가 주도 반등	스크랩·에너지 상승·항로 차질·중국 감산	터키 철근 상승·아시아 하락 폭 축소	낮음·보통

핵심 관전 포인트

- 중국 열연이 톤당 500 달러(FOB), 베트남 수입 열연이 520 달러(CFR)를 방어하는지 여부
- 미국산 HMS 1&2(80:20) 375 달러(CFR) 대비 다음 터키 심해 스크랩 성약 수준
- 6 월 사상 최대 또는 이에 근접한 수준 이후 중국 슬래브·빌렛 수출량
- 해상 공급 확대 속 중국향 철광석이 90 달러 후반(CFR)을 유지하는지 여부
- 쇼트톤당 1,160 달러를 웃도는 미국 내수 열연과 수입재 도착 물량의 경쟁
- 선적 시기와 도착원가에 영향을 주는 CBAM·세이프가드 쿼터·반덤핑 조치

권고 대응전략

아시아 구매자는 구매주기를 짧게 유지하고 오퍼를 동일한 도착원가 기준으로 환산하며 원가 주도 반등만을 근거로 재고를 늘리지 않아야 한다. 판매자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유지하되 확정 거래와 희망 오퍼를 구분해야 한다. 국내 시장 참여자는 아시아 열연 500 달러 초반대와 중국 반제품 수출 속도를 핵심 역내 지표로 보되 미국·유럽 가격은 글로벌 공통가격이 아닌 지역 고유가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